

불자 세상보기

무주상 보시 보여준 위안부 할머니들



변현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미래의 부처님은 미륵불이라고 한다. 사랑을 뜻하는 인도 고어인 빠알리어 메따(metta)와 마이뜨레야(maitreya)의 중국어 번역을 우리말로 발음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은 석가모니부처님(사카무니)의 전생수행자 시절의 존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인 보살(bodhisatta)이었을 때 깨달음의 여정에서 수행한 내용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다.

보살은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四無量心)이라고 해서 사랑함(慈, metta), 연민함(悲, karuna), 기뻐함(喜, mudita), 평온함(捨, upekkha)을 실천해야 수행을 완성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사랑함과 연민함의 한자어를 합쳐서 우리가 자비라고 부르며 불교의 대표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자비의 짝은 지혜(智慧, panna)다. 자비 없는 지혜 없고, 지혜 없는 자비

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깨달은 분이라는 뜻은 나타내는 부처님 가운데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부처님의 이름이 메따 또는 마이뜨레야이고 우리 발음으로 미륵인 것은 뜻이 깊다.

온전히 우리말로 옮기면 '사랑하는 이'가 바로 미륵부처님인 것이다. 조금 한자어를 넣어 쓴다면 '자비로운 이'가 미륵부처님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웃종교이며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

계산없는 베품이 진정한 보시
지진 성금보낸 할머니께 배워
진실한 자비행에 박수 보내야

교의 구세주를 '메시아(messiah)'라고 하는데 역시 '사랑의 신'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불교의 미래불이나 그리스도교의 미래 구세주가 모두 자비와 사랑을 특기로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미래의 구세주 아니라 지도자는 다른 존재, 다른 이들을 자기와 자기

족·국가처럼 따뜻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며 배려하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부처님은 대승의 <법화경>에 의하면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여 깨달아 들게(佛之知見開示悟入)'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였다.

부처님의 지견은 모든 존재가 나의 내 것이라고 할만 한 어떤 알갱이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도 없는데 그 반대라고 오해하는 너 또는 다른 이가 있을 수 없다.

너 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네 민초 또는 중생들의 정서언어로 이해한다면 무슨 뜻일까?

바로 너, 너희가 아닌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들어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고 있는 말이 '다른 종교(other religion)'가 아니라 '이웃종교(neighbor religion)'라는 말이다. 세계 종교인들이 부러워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뛰어난 생각이 있다. 바로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관계나 이어나 이득이

없이도 사랑하는 자비 즉 무연자비(無緣慈悲)를 가장 큰 사랑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나누고 베푸는 있어서 아무 계산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사랑하거나, 관계가 있거나 이득을 위해서 하는 베품과 나눔이 아닌 나눔을 했다는 데 이견이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한 자신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당사자들의 나라라는데 이런 저런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실사 그런 생각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들도 아니고 직접 말 못 할 고통을 겪은 그들이 이른바 종교인들도 하기 쉽지 않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런 나쁜 일을 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지도자나 국가가 한 것이 아닌가? 군대 성포해자(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진 위로성금을 보냈다고 한다. 우리들이 부끄러워하고 따라서 실천해야 할 일이다.

발언대

가습기 살균제 논란

옥시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겪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옥시는 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자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이 발언과 SNS에서의 의견들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SNS에서는

@suicide_pact

나 역시 우리 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사람의 핀잔을 무릅쓰고 옥시제품을 애용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nandndoen

'옥시' '살균' 가습기살균제 외 다른 옥시 제품들의 위험성 유무에 대해 당국이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서 집에 있는 다른 옥시 상품들을 버려야 하나 고민 중이다. 옥시의 다른 제품에 대한 유해성 조사도 속히 실시 발표해야 한다.

@parkkwangon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옥시 또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옥시 관련 연구진 양심선언해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공개돼야 하는데 특정 연구결과만 따로 제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큰 문제다.

특히 기업 측이 실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연구원 측에 전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런 정황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설마 대학이란 곳에서 기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떤 실험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생명현상'이란 것은 100프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후백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 손상이 됐다'는 피해자들에게 꼭 살균제 때문이 아닌 다른 요인, 황사·꽃가루·흡연과 같은 제3의 위험요소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옥시 측 주장 자체를 100%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응하려는 해명 차원에서 벗어나 한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대 연구팀의 주장대로 옥시 측이 2011년 임신한 쥐를 실험한 1차 보고서'는 목살하고 일반 쥐에 대한 2차 보고서만 세상에 알렸다면, 5년간 왜 연구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나'는 항간의 논란에 대해서 학교에 재직 중인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학 연구라는 것은 사회의 공공성을 담고 있는데, 기업의 의외에 의한 연구였다 해도 지금까지 침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최소한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고통과 슬픔을 안다면 양심선언이라도 했어야 한다. 그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지금이라도 연구진에서는 진실 공개를 해야 한다. 침묵하는 것이 연구원의 윤리가 아니다. 감추고 있는 것, 말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입을 열지 못한 연구원이 있다면 자신 있게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社說

사찰 안전 위해 규제 풀어야

국민안전처의 전통사찰 특별점검 결과 전통사찰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2곳에 달하는 사찰이 일반 가정용 소화기 외에 별다른 화재대책이 없었으며 167곳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부처님오신날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날,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기본 소화시설도 없는 사찰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다.

전통사찰은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이며 내부에 화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초연등 등이 있기에 다른 시설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대부분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 발생 시 국가적인 손실도 막대하다.

최근 전국사찰 화재는 201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방시설 정비와

화재예방, 화재진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사찰 내부의 소방시설 설치와 별개로 소방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하지만 산림법 등 관계법령에 발목이 잡힌지 오래다.

지난 2014년 강화 전등사에서는 산불이 사찰 내로 번지기 직전까지 갔다. 소방차가 들어 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 전등사 내 300톤의 방화수로 겨우 화마를 견뎠다. 위기를 넘기고 전등사는 소방차 진입을 막는 남문계단 정비 등을 제안했지만 문화재청이 사적 훼손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번 국민안전처가 대대적으로 사찰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환영할 일이다. 점검과 함께 그동안 사찰 안전을 위협한 규제법령을 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불교 출판,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4월 27일 월간 <불광> 500호를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 잡지·출판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장은수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의 발표는 불교계 출판·인문인들에게는 중요한 경고였다.

장 교수에 따르면 불교 출판의 증감분야 점유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다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2015년에는 5.8%나 줄었다. 성장률을 봐도 하락세는 두드러진다. 2012년과 2013년 20%대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4, 2015년에는 21.1%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타났다.

연령별 불교 서적 점유율은 한국불교를 꼭 닮아 있다. 교보문고에서 10대가 불서를 구입한 경우는 0.6%에 지나지 않았고, 20대는 11.7%에 그쳤다. 하지만 40, 50대는 각각 27.9%, 25.9%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잡지와 출판도 소비의 영역이다 보니 불교 인구와 비례해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불자들은 한국 3대종교 신도 중 책을 안 읽기로 유명하다. 경전조차도 잘 안 읽는다. 실제 2014년 조계종 불교사회 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소 종교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나'는 질문에 '경전을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불교 신자는 7.9%였다. 반면 개신교는 37.8%였다.

불교 출판은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반 어린이 교육교재 등은 불황을 모른다. 불교 출판 중 어린이가 볼만한 교육 교재나 책이 발견되는 하는가?

대형서점에서 자녀의 손을 붙잡고 성경책을 선물하는 부모를 자주 본다. 개신교는 양과 질로 종교 출판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스타 스님 필진만으로도 대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한 불교 출판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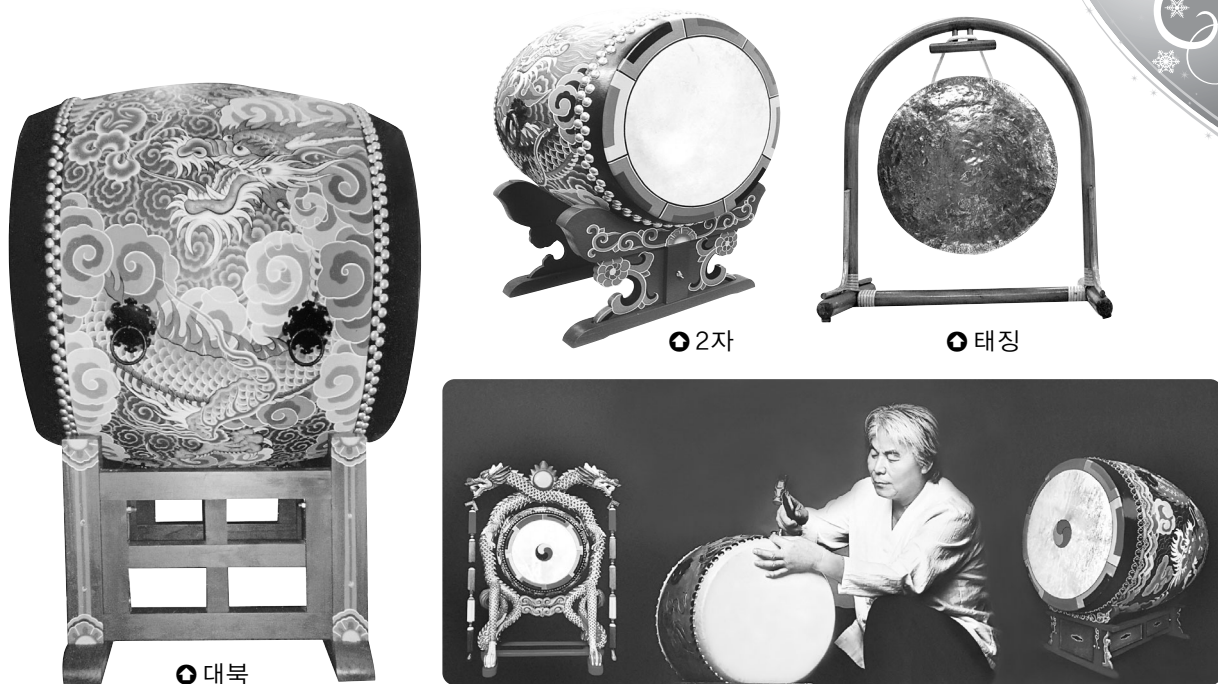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연락처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락상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북과 · 범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제작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꿔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임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